

해남군 트래킹코스 ‘달마고도’ 관광상품 육성

17,7km 달마산 둘레길

작년 11월 개통후 큰 인기

걷기대회·팸투어 홍보 나서

해남군이 트래킹코스인 ‘달마고도’를 지역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드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달마고도는 지난해 11월 개통한 트래킹코스(17.7km)로,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달마산(489m)과 기암괴석이 이어진 바위벽종 꼭대기에 절묘하게 세워진 도솔암, 땅끝 일대와 미항사, 서남해안 절경 등을 두루 거치는 길이다.

건설 장비 등을 쓰지 않고 사람 손으로만 다듬은 길이라는 매력에 개통 전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둘레길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은 우선, 명품 코스를 제대로 알릴 ‘트래킹 가이드’를 지역민 중 선발해 운



해남군은 달마고도를 이미 조성한 땅끝길, 삼남길, 땅끝 천년 숲 옛길과 함께 지역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활용,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해남군 제공>

영기로 했다. 트래킹 가이드는 여행객들과 달마고도를 걸으며 코스를 소개하고 길 주변 마을 주민들의 삶, 전해 내려오는 설화, 풍경 등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달마고도를 전국 등산객과 걷기 여행객들에게 알릴 걷기대회도 구상중이다.

해남군은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걷기대회와 숲속 음악회 등을 열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코스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또 전국 산악회와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해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해남은 ‘국도 최남단’, ‘국도순례 시발지’인 땅끝으로 인해 연간 1만명의 도보여행객과 국도순례객들이 찾는 명소로, 기존 조성된 ▲땅끝길 ▲삼남길 ▲땅끝 천년 숲 옛길에 ‘달마고도’까지 포함, 전국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달마고도는 개통한 뒤 2개월 남짓이지만 주말에만 500명이 넘는 산행객들이 몰리는 등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 게 해남군 설명이다.

한편, 달마고도는 해남 미항사를 시작으로 큰 바람재~노시랑골~물고리재로 이어지는 17.7km 구간으로, ▲미항사~큰바람재(2.71km) ▲큰바람재~이진리 노시랑골(4.37km) ▲노시랑골~물고리재(5.63km) ▲물고리재~미항사(5.03km) 등 4개 코스로 나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군 김·미역 등 해조류 北 지원 추진

완도군이 김, 미역, 다시마 등 지역 해조류를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북고위급 회담 재개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북한 동포 지원 완도 김, 미역, 다시마 보내기 운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열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완도군은 지역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해조류를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품목별 협회, 완도금일수

협, 완도소안수협 등을 주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면 민간단체를 통해 수산물 양식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공단 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완도군은 지난 2006년에도 완도산 미역 30t(3억원)을 민간단체 주관으로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현 정부들이 개선되는 모양새”라며 “민간이 주도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다도해일출공원 확충 등

완도 지역개발사업 3건

국토부 국비 150억 확보

완도수목원 인근 서부 해안도로를 거닐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탐방로가 조성된다.

완도군은 9일 국토교통부 신규 지역개발사업으로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와 가리포해안 노을길 조성,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이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50억원, 다목적 주차장조성사업 60억원, 가리포해안 노을길 조성사업 50억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된다.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된 공원면적을 57만 1552㎡로 확대해 체험, 휴식, 놀이, 숙박시설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가리포 해안 노을길 조성사업은 완도를 소재로 세트장에서 완도수목원 입구까지 서부 해안도로에 탐방로를 개설해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준공식



완도항 여객터미널 신청사 준공

완도항 연안 여객선터미널 신청사가 9일 준공됐다. 신청사는 바다를 향해 비상하는 선

박 이미지를 형상화해 지상 2층(연면적 4785㎡) 규모로 건립됐다. 동시 수용 인원은 1750명으로, 사업비 188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지난 2014년 1월 공사에 들어갔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신품종 보급·재배 교육…진도군 구기자 경쟁력 높이기 총력

진도군이 특산품인 구기자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농업인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도 구기자 신 품종 보급, 육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진도군이 공급하는 품종은 진보 1·2호로, 1호는 국립종자원에 진보 1호(珍寶 1호)로 품종보호등록 완료한 상태다. 나머

지 1개는 현재 등록 추진중에 있다.

이들 품종은 재래종에 비해 탄저병 등에 강하고 여러차례 수확이 가능한데다, 다른 지역 구기자에 비해 상품성이 좋다는 게 진도군 설명이다. 진도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품목별 구기자연구회를 육성키로 하고 연간 4차례의 농민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진도군은 또 농업인들에게 구기자 재배

를 위한 천정 개폐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유통리형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가공·판매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구기자 생산농가의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수확 재배기술 등을 연구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수목원 난대숲 힐링명소로 거듭난다

감성체험 사업, 문광부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선정

완도수목원의 난대숲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이하 생태관광) 대상지로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지역의 생태테마자원을 지역 관광콘텐츠와 연계, 이야기기로 만들고 스토리텔링화하는 사업으로 완도군이 제출한 ‘수목원 난대숲 감성체험’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을 선정했다.

‘생태관광’은 지역 자연과 문화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문체부는 이같은 생태관광의 기반 육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관광공사와 ‘생태관광 10대 모델’, ‘한국 슬로시티’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주민 역량 강화사업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사업을 선정했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선정된 완도의 ‘수목원 난대숲 감성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991년 개원한 전남도립 완도수목원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완도수목원은 한반도 최대 난대림(난대상록활엽수림) 자생지로, 붉가시나무, 구실자밤나무, 동백나무 등 770종의 난대성 자생식물이 여의도 2.4배 면적인 2032ha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완도군은 수목원을 활용, ▲숲공예 등 난대숲 체험 ▲지역민 난대숲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완도수목원이 지닌 현대인들이 사계절 내내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Detox) 요법을 받는 것처럼 힐링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생태관광’의 인지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공사와 함께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신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태와 관광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개별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광주 남구 주월동 도로접 646㎡(전) 국제양궁장 옆, 전망 최고
▶매매가 1억1천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